

아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기대하며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18년에 1명대가 무너진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에는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 되었다. 더욱이 통계청은 2023년 4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¹⁾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상태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은²⁾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절감하게 한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을 정책의 직접적 대상으로 존중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아동을 사회보장의 직접적 수혜자로 인식하고 관련한 모든 제도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³⁾ 2023년 4월 정부가 발표한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성장 기회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아동 정책 추진 방안」에서도 아동의 꿈과 희망, 의사를 존중하는 정책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다.⁴⁾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사회에서 아동들에 대한 존중은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키즈존(No Kids Zone)’ 현상을 들 수 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하며, 2023년 11월 기준 약 450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⁵⁾ 이러한 노키즈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⁶⁾

1) 한겨레(2023.11.29.). 3분기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명...4분기 0.6명대 갈 수도.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8377.html(인출일: 2023.11.30.).

2) 한국은행 블로그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347/view.do?nttid=10080997&menuNo=201106&pageIndex=1>(인출일: 2023.11.30.).

3) (대한민국 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pp. 75-76.

4) 관계부처 합동(2023.4).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성장기회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p. 6.

5) 연합뉴스(2023.11.16.). [팩트체크] '노00존'은 합법?.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3122900505>(인출일: 2023.11.30.).

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23. 8. 30.). 백화점 휴게시설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출입 제한하는 것은 차별, p. 3.

이와는 반대로 2022년 12월 서울시는 모든 아이가 환영받고,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양육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지정하였다.⁷⁾

‘노키즈존’과 ‘서울키즈 오케이존’ 중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둘 다 공공장소에서 아동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장소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기 위해 질서를 지켜야 할 곳이다.

아동은 공공장소에 사회 구성원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도 모두 아이였을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자. 우리가 자라는 동안 배려와 존중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체득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인식하자.

넬슨 말덴라는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은 배려와 존중을 되새겨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7)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뉴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6945>(인출일: 2023.11.30.).